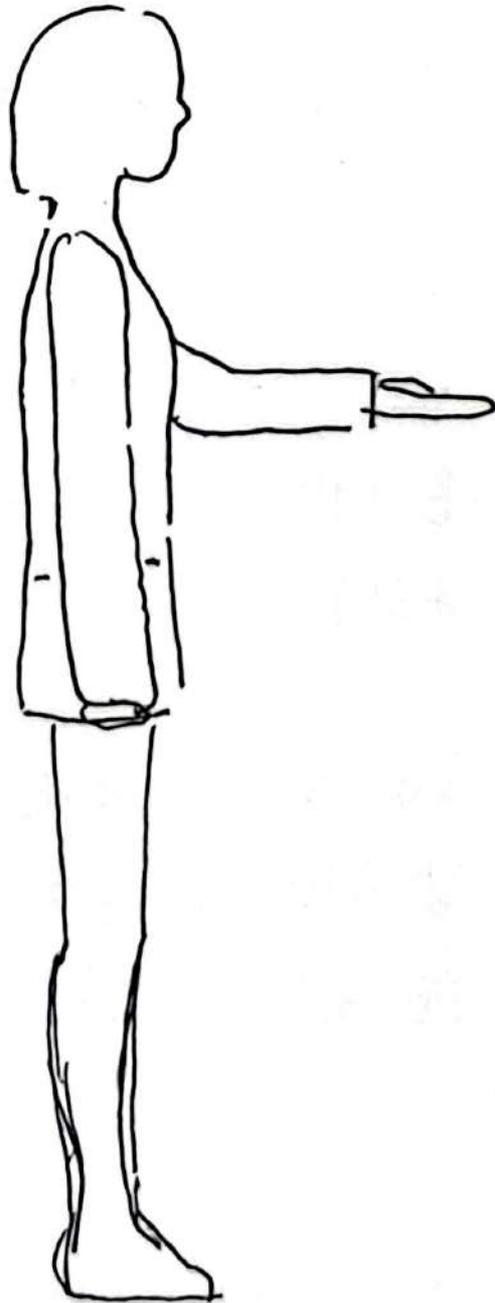


2026

I love my ...





25
8
19
의
여
름
디

어떤 추억은 너무 짙어서 지워지지 않는다.
 깊은 바다와도 같은 추억은
 아무리
 파도가 세차게 몰아쳐도
 모래사장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.
 그저 깊은 곳으로 계속 계속... 계속
 그렇게
 :
 계속

여
름
과
의
공통점은
 무엇이라고 생각
 하십니까?

사
랑
의
햇빛을 받는 모래는
 금방 식지 않습니다.

-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함 | 당신의 답 |
| • 김재우 | • 가까울수록 뜨거워지고, 멀수록 냉정해진다 |
| • 애현 | • 일백 |
| • 김재운 | • 끈적거림조차 즐거운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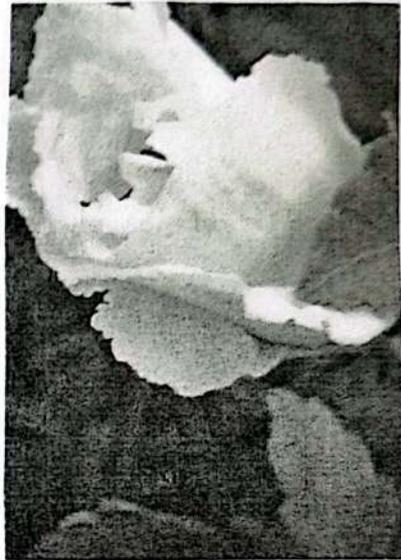
from. 사랑도
 여름 파도와
 같
 이
 :

모든 사랑에 제한이 있듯.

실...라...홍연 우리는 어디로.....

민연은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영켜서
지나갈지 모르는 것.

그럼에도 소중해.



마
음
하
늘
을
가
진
?
나
라

꽃은 사람에게 비해 턱없이 자그만하지만
강렬함과 향은 오래오래... 기억에 남고
때
로
는
사람보다 깊은 위로를 전해줍니다.

꽃으로 사랑을 말하는 이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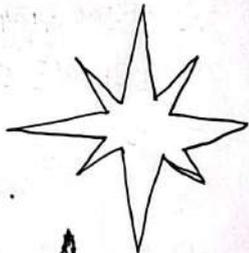
저는 매일
하루도 빠짐없이
밤하늘을
확인 합니다.

- 굳이 밤이 아니더라도.

오늘 당신의 하늘은 어땠나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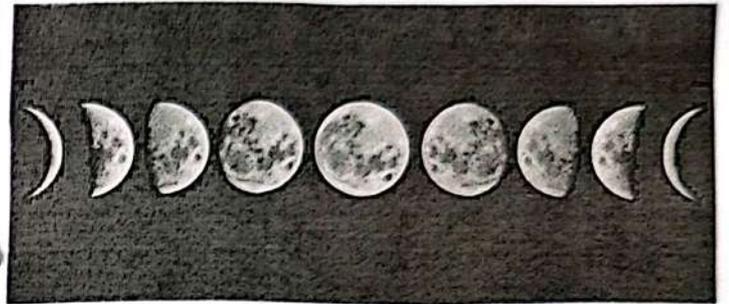
많은 날이라

하얀 수 많은
작은 점
들이



돌아다니진

않았나요?



no pain no gain

愛わ 알다시피 しらないこと

でも

わたし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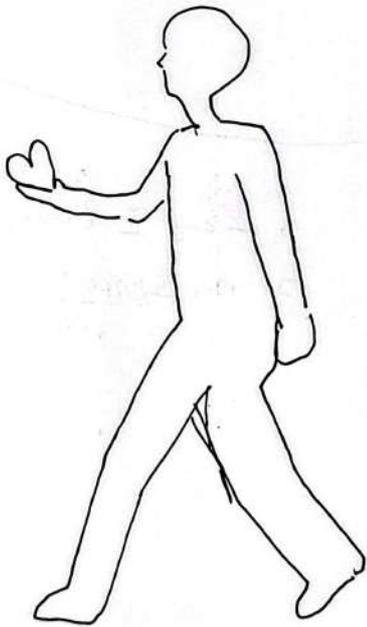
だけじゃない

전부

모른다.

愛を。

우리는 또 어디서
만나게 될까요.



모두 그 이야기를 아는가?

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

하얀 나비가 되어

생전 사랑했던 사람을

다시

만나러 온다는 이야기.

19
·
4
·
5
식
목
이
일



그 날 이후 나는 벚꽃만을 기다린다.



2026. 1. 31

열아홉의 시작을 알리며

우연